

# 등장인물 성격의 시각적 형상화를 위한

## 분장의 형태와 요소 분석

### -오페라 「투란도트를」 중심으로-

전임강사 류 광 록

진주국제대학교 인체예술학부

## I. 서 론

21세기는 가히 정보화의 시대라고 일컬어 질 수 있다. 정보화의 혁명이라 불리는 인터넷과 보편화된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텔레비전과 신문 등 대중매체의 발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홍수는 우리 생활 곳곳을 휩쓸고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분장도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분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원시 샤머니즘의 주술적 효과 등을 위한 가면의 사용이나 채색 등 원시적 분장술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그 이후 분장은 대표적 공연양식인 연극과 무용에서 가면의 사용과 함께 주로 변장(變裝)의 의미로 사용되어 지던 분장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필요성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치장했던 화장이라는 두 축으로 발전되어져왔다. 19세기 후반, 사실주의 연극의 융성과 각종 안료의 연구·진보와 더불어 분장은 복잡하고 정교해지게 되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에 대한 논의와 미(beauty, 美)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증대는 화장품의 발달과 대량생산은 눈부신 화장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특히, 1920년대 경제 산업화로 미국을 비롯해 등장한 무성영화 등장으로 인해 배우들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sup>2)</sup> 분장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도구와 재료의 발달과 더불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분장술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몇 가지 변화의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정보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유행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의 전파는 분장기술의 차이를 점점 줄여 나가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유행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살리기 위한 화장법도 발전되어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직업들이 그 만큼 더 특성화된 분장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 메이크업(photo make-up)<sup>3)</sup>, 영화를 위한 무비 메이크업(movie make-up)<sup>4)</sup>, 텔레비전을 위한 티브이 메이크업(TV make-up)<sup>5)</sup>, 무대공연을 위한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up)<sup>6)</sup>, 그리고 바디페인팅(body painting)<sup>7)</sup>등 메이크업 내에서도 전문분야가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분야 안에서도 어떤 목적과 시간, 장소들 등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또 다시 메이크업 방식은 더욱 세분화 되어진다.

셋째, 공연문화의 장르개념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거대 자본과 기술의 집적(集積) 등을 통해 점차 공연예술이 블록버스터(blockbuster)\*화 되어져 가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장의 규모도 커져가면서 더 전문화되고 많은 수의 무대 분장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위의 세 가지 양상들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는 분장의 학문적 연구이다. 분장기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꾸준히 계속 되어져 왔으나 학문적인 연구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4년제 대학에서 하나 둘씩 분장과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분장이 하나의 기술적 수준을 넘어 실용적 학문의 대상 중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장이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장이 하나의 실용적 학문으로서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인 탐구방법론들을 생각해 보고, 그 방법들을 실제 분장에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교육되어짐으로써 분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분장의 테크닉들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학문적 체계 안으로 정리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무대공연 예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중에서 2003년 4월 24일에서부터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국립오페라단의 '투란도트(TURANDOT)'를 선택하여 그 등장인물들의 얼굴분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분장의 형식과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형식과 요인들은 어떻게 결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창조를

해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요등장 인물인 '투란도트', '칼라프', '류', '알투움 황제', '핑', 이렇게 총 5명의 각각의 인물분장들을 베이스, 눈썹, 눈, 코, 입, 턱의 범주(帆柱)로 나누어 형태와 색조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물들을 다시 골상학(骨相學)<sup>8)</sup>과 색채학(色彩學)<sup>9)10)</sup>에 접목시킴으로써 분장을 통해 형상화된 인물의 성격파악을 시도해 보았다.

\*블록버스터(blockbuster)란 흥행에서 대성공을 한 영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블록(block)이란 대도시에서 사방도로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한 구역을 단위로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이 전체 구역(block)을 날려버릴(bust)정도로 큰 폭탄이 원래 (blockbuster)인데 이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가진 영화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박신의 외(2002). "문화예술경영이론과 실제". p. 301.

무대예술에서 분장의 본질은 극본이 요구하는 인물의 성격창조에 있다.<sup>11)</sup> 공연예술에서는 무대에서 배우가 의미전달의 수단으로서 대사나 노래, 연기와, 춤 등의 다양한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호 체계를 거쳐 드러나는 이야기 구조와 인물이 겪는 사건들로부터 관객에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유형이 파악되어지고 전달되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장 또한 무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전달 수단의 기호체계 중 하나로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관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등장인물 성격의 시각적 형상화를 위해 분장의 형식과 요소들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요 등장 인물들의 분장과, 또 다른 2003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던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등장인물들의 분장과 비교해 봄으로써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 분장은 어떻게 대응되었는지 살펴보았다.

### Ⅲ. 연구 결과 및 결론

골상학과 색채학 이론의 몇 가지 범주들을 분장의 형태와 요소들에 대입시켜 파악해 본 '투란도트'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았다.

투란도트 -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며 동정심이 없고 완고하다. 한편으로는 결단력이 있고 냉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칼라프 -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정력적인 기질을 가졌으며 진지하다. 다정하고 낭만적이다."

류 - “전체적으로 온화하며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의지력과 책임감이 강한 성숙한 여성적 이미지를 가졌다.”

알투움 황제 -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현명하고 엄숙하면서도 포용력을 갖춘 권위 있는 지도자 상이다.”

핑 - “용맹한 기상과 교활한 기질을 가졌으나 겁이 많고 경솔하기도 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하지만 색상과 문양이 강조된 평면분장, 다시 말해 형태, 면, 테두리의 구분이 가지 않은 분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임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입체적인 등장인물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분장 -그 인물의 모든 것 : 유전, 종족, 환경, 기질, 건강, 연령까지 고려된<sup>12)</sup>-을 몇 가지 이론들만 간단하게 대입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더구나 사진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시도만으로도 등장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파악해 낼 수 있다는 결과는, 분장이 비록 복잡하고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술적인 창조 작업이긴 하지만 정밀한 관찰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장의 형식과 요소들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만들어 낸다면 얼마든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진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투란도트 인물분장을 2003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던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공연에 등장한 인물들의 분장과 비교해 본 결과, 상암 경기장의 투란도트에서는 등장인물분장은 얼굴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진한 칼라를 이용하여 코를 세우고, 아이홀 부분을 강조하고, 양 볼 부분에 입체감이 생기도록 새도 처리 등의 강조를 주는 분장기법이 예술의 전당 공연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 “극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분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맨 앞줄의 관객에 초점을 두고 분장을 해야 한다.”<sup>13)</sup> 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는 상암 경기장에서의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보다 더 과장되고 강조된 분장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암 경기장에서는 무대 양쪽에 400인치 크기의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었는데<sup>14)</sup> 이를 위하여 카메라등의 영상장비가 동원되었고 등장인물들의 분장은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up)과 함께 무비 메이크업(movie make-up)기법이 가미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장은 일반 무대분장보다 사실적이었지만, 대신 화려한 의상과 가발 및 수염을 사용함으로써 분장의 효과를 보충하였다. 이처럼 분장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해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연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이어 차후에는 오페라 분장이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환경적 요소들이 분장기법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오페라 분장이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분장효과들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구체적인 관찰을 통한 과학적인 범주들로 체계화시키고, 그러한 분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것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해 낼 때, 무대 위의 인물들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살아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분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서울: 자유문화사, p.25.
- 2) 김세환(1999). 한국 토탈메이크업. 서울: 서우, p.27.
- 3) 김세환(1999). '앞의 책', p.186.
- 4) P.DELMAR(2002). MAQUILLAGE ARTISTIQUE CINEMA·TELEVISION·THEATRE. Paris: VIGOT, pp.71~72.
- 5) 김경순 외(2000). MAKE UP-Ⅱ. 서울 : 청구문화사, pp.96~98.
- 6) 김영희 외(2001). 토털 메이크업. 서울 : 정문각, pp.112~116.
- 7) 김영희 외(2001). '앞의 책', p.134.
- 8) 이상훈 외(2000). 분장의 세계. 서울 : 고문사. pp. 17-18.
- 9)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국제, p.138.
- 10) 김세환(1999). '앞의 책', p.127.
- 11) 이학재(1994). '앞의 책', p.29
- 12) 김지은(2003). 한국현대뮤지컬 공연의 분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p.21
- 13) P.DELMAR(2002). '앞의 책', p.61
- 14) <http://www.kmib.co.kr/html/kmview/2003/0511/091900224413120000.html>2003. 10. 30.
- 15) Lesile Orrey(1987). A Concise History of Opera. 류연희 역. 서울: 동문선.
- 16) 객석(2003). 6월호. pp.80~84
- 17) 팜플렛(2003). TURANDOT. 국립오페라단
- 18) 박신의 외(2003). 문화예술경영이론과 실제. 서울: 생각과 나무, p. 301.